

민주, 불법 권리당원 모집 진상규명 손 댄나

'광산 갑·을 지역구 1000여명 등록' 자체조사 미온적 목포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 워크숍 열고도 논의 없이 종료

민주당이 광산 갑·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불법 권리당원 모집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권리당원 등록 규모가 2개 선거구에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도 중앙당은 진상 규명에 대한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진상규명 의결은 정치적 '오만'으로 비춰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 민심의 저변에 상당한 역풍을 부를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불법 온라인 권리당원 모집 문제는 이미 광주시당이 보고한 바 있고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앙당이 적극적 진상조사가 나섰다고 하기 보다는 일단 상황을 알아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개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일단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해 철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는 일단 내부 문제를 끌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불법 권리당원 모집 관련 당원들을 소환·조사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내년 총선 입지자들과의 관련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넓은 것으로 알려져 이를 그냥 넘어간다면 광주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진상규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물 밑에서 주도한 총선 입지자들을 밝혀 책임을 묻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불법 권리를 통해 등록된 온라인 권리당원들을 무효화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설 끊는 야권 정계개편론

홍문종 한국당 탈당에 보수재편 꿈틀...바른미래 변수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진박(진박근혜) 신당' 창당 선언을 계기로 야권 정계개편 시계가 빨라지는 분위기가 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전 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보수진영 재편이 급물살을 타는 시나리오도 대두하고 있어 제1야당인 한국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자칫 보수 분열로 이어지면서 내년 총선에서 제1당 탈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가 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당 대당 통합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수통합의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우선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 일부를 받아들이는 '흡수통합'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23일 "당 대당으로 합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겠나"며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총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오는 9~10월까지는 자당을 구심점으로 한 보수통합 기반을 다져나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한국당이 최근 들어 바른미래당에 러브콜을 보내며 이른바 '보수 빅텐트'가 직접 아들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절정에 달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과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결의한 것도 적잖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서는 한 국당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에 실패할 경우 내년 총선 때 일부 지역구에서 '선거연대' 형식을 통해 손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잘 이끌겠습니다" 23일 오후 대구 중구 한 문화복합공간에서 열린 정의당 당대표·부대표 후보 대구경북 순회유세에서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부대표 후보, 김종민 부대표 후보, 이현정 부대표 후보, 심상정 대표 후보, 양경규 대표 후보, 박예휘 부대표 후보, 박인숙 부대표 후보, 이혁재 부대표 후보. /연합뉴스

"황교안, 아들 채용 비리 의혹 해소하라"

민주 "KT, 채용비리 온상...부서 이동과정 문제 많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아들 스펙 발언 논란'과 관련한 '황교안 때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황 대표가 아들의 경력을 언급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황 대표가 직접 아들의 KT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혜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황 대표 아들이 취업한 곳이 채용 비리 문제가 크게 불거진 KT인 데다 당초 마케팅 부서로 입사했다가 도중에 법무팀으로 옮긴 점 등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뻔히 아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 취업 이야기를 먼저 꺼내어 채용 비리 의혹을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의 채용 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하라"며 "KT 입사지원서나 학점·토의 성적 증명서, 함께 합격했다던 또 다른 대기업 4곳에서 받은 채용 합격 통지서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정연설 강행" vs "선별 상임위"... 평행선 국회

여야,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놓고 대치 지속

여야는 주말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둘러싸고 날 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 복귀를 선언했다. 우선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문화상 국회의장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24일부터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

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제정장 후보자 인사장문화와 북한 폭탄,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제대체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이웨이로 고집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는 국회 막아라"

여야, 국민소환제 등 추진

국회 파행 장기화와 맞물려 '노는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 서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계당은 국민이 직접 부적격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회를 열지 않으면 교섭단체인 정당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성보조금을 감액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입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있음에도 국회 공정을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미래 '전열 정비'

손학규 대표, 한달간 전국 시도당 투어 돌입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전국 시도 당 순회하며 내년 총선에 대비한 조직 정비를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전국 시·도당 투어'를 시작한 손 대표는 내달 1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지난주 인천, 경남 창원, 대구, 강원 속초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전, 세종,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전남 무안, 전북 전주 등을 찾아 충청·호남권 당원들과 만난다. 손 대표의 전국 시·도당 순회는 지난 해 9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불거진 당 내홍 사태가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다. 손 대표는 전국 시·도당 투어를 계기로 공식인 당 지역위원장 영입에도 직접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253개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자리의 절반 이상인 150개가 공식인 상태다. 당 관계자는 "혁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곧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입야

▶ 바로 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다스코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유가 어려운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입찰가 기술팀이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분
 - 태양광발전소가 필요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장에
- 태양광 영업 인재 모집**
 - 태양광 사업에 유망한 분
 -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분
 - 태양광 개발사업 경험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사업부담당 분석 가능자, 경력 10년 이상	화순
	신재정비-PM	영업	태양광영업 경력자	
세라코	수질관리	실재정비	실재정비 경력자	나주
	세라믹 (영업/개발)	영업	실재정비 경력자	
		R&D	요업 관련학과 전공자 유대	

* 문의처: 담당자 06330-212, mca@dsco.kr,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